광주신세계, 20～40대 트렌디 브랜드 잇단 입점

봄·여름 시즌 앞두고 매장 새단장

1월 '비욘드 클로젯' 'CC콜렉트' 오픈

'캉골' '솔리드 옴므'도 곧 개장할 듯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임훈)가 봄·여름 시즌을 앞두고 매장을 새 단장한다.

이번 개편 작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 및 수도권 등지의 주요 상권에만 편중됐던 트렌디한 브랜드를 지역 최초로 선보이며 유통채널을 호남권으로 다각화했다는 것이다.

광주신세계는 잡화에서부터 남·여· 의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12개 신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오픈하고 기존 브랜드 리뉴얼 공사도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MD(Merchandise·점내 입점 브랜드)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3월 이후 신춘기간 동안 백화점 전체 고객 구성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20～40대 고객 집객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켰다"며 "다양한 오픈 이벤트와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디자이너 고태용의 '비욘드 클로젯'과 시크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실용성을 겸비해 최근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데일리 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주얼 핸드백 브랜드 '콰니'가 앞서 오픈했다.

또 홍콩을 대표하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감각의 슈즈 브랜드 '스타카토', 모던한 감성의 영 캐주얼 브랜드 'CC콜렉트'가 입점해 판매를 시작했다.

오는 25일 영국 패션브랜드 '캉골'과 27일에는 브리티시 캐주얼 컨셉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클럽 캠브리지', 29일에는 최근 중국 등 해외 여러 곳에 매장을 오픈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디자이너 우영미의 '솔리드 옴므'가 잇따라 선보여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각 장르별 부진MD를 보강할 계획이다. 실제 여성복과 캐주얼 부분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내셔널(국내) 브랜드를 대거 입점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 캐주얼 브랜드 'CC콜렉트'.

디자이너 우영미 '솔리드 옴므'.

20～30대 여성층 겨냥 '탄산주' 경쟁

보해양조 '부라더 소다 딸기라 알딸딸' 인기

롯데주류·무학·하이트진로도 신재품 개발

지난해 소주·위스키 등에 과일맛을 넣어 재미를 봤던 주류업계가 올해에는 연초부터 '탄산'을 넣은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탄산주 역시 과일맛 술과 마찬가지로 젊은 20～30대와 여성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특히 3월 대학교 개강을 전후로 새로운 제품이 잇따라 선보일 전망이다.

보해양조는 이미 지난해 11월 화이트와인 바탕에 탄산과 소다 맛을 첨가한 낮은 알코올 함량(3%)의 '부라더 소다'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호응에 힘입어 보해양조는 지난달 딸기 맛을 더해 탄산주 '부라더 소다 딸기라 알딸딸'을 추가로 출시했다.

롯데주류는 이르면 이달 말 매실주에 탄산을 섞은 '설중매 매실소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앞서 2010년 국내 최초로 탄산을 첨가한 탄산 매실주 '설중매 스파클링(알코올 함량 10%)'을 내놓은 경험이 있는데, 신제품은 도수(알코올 함량)가 더 낮은(4.5%) 대신 탄산이 더 많이 들어간 본격 '탄산주'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현재 무학은 유통업체 이마트의 캐릭터 '일렉트로맨'을 사용한 주류를 개발 중인데, 하나는 과일맛 소주이고 나머지 하나가 탄산을 넣은 소주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부라더 소다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딸딸

이 탄산주의 이름으로는 '엔조이 스파클링(가칭)'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도 탄산주 개발을 저울질하고 있으나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주류업계가 탄산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1～2년전부터 탄산수가 크게 유행을 타면서 이미 탄산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크게 줄어 수요가 충분한데다 과일이 주는 '달콤한 맛'과는 또 다른 '청량감'을 술에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폭음보다는 술을 즐기는 문화가 계속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젊은 감각의 다양한 낮은 도수 술이 인기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

'집 꾸미기 방송' 열풍에

침구·가구업체 바빠진다

봄과 새 학기를 맞아 집 꾸미기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집 꾸미기 방송이 늘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특색있는 가구로 집을 꾸미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21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테리어나 침구·가구 등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소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오픈마켓 G마켓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품 판매 추이를 살펴봤더니 장식용 타일인 데코타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급증했다.

이 중 캔들 액세서리와 공예 소품 판매량은 각각 189%와 67% 급증했고 무드등과 인테리어용 스탠드 판매량도 각 56%와, 29% 늘었다.

오픈마켓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 카펫·러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8% 급증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주 쓰이는 피규어 등 각종 미니어처 제품 판매량은 56%, 커튼과 조명등기구 판매량은 각 33%와 39% 늘었고 커튼 판매량도 33%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기능성 목과 척추를 편하게 해주는 기능성 침구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강과 취미생활에 대한 투자가 집으로 옮겨지면서 저렴하고 작은 소품부터 고급 수입 가구까지 인테리어와 관련된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1850～1950선 박스권

일부 단기차익 매물 나올 듯

환율문제가 변동성 변수

벼랑 끝으로 치닫던 글로벌증시가 모처럼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 이후 과도했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주요산유국의 감산합의 기대감과 미국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성으로 기준금리 인상 지연기대감이 부각되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월 들어 급락세를 보였던 일본증시가 지난주만 +6.7% 급반등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홍콩H지수 +8.08%, 상해종합지수 +3.5%, 프랑스 +5.7%, 다우지수 +2.6%, 나스닥 +3.85% 상승해 대부분의 글로벌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주 증시전망에서 이번 주 국내증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언급했던 외국인의 선물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한 주간 1만7630 계약 순매수를 기록하며 국내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지수는 4.4% 상승해 1,916포인트로 마감했고 설연휴 이후 이틀간 11%의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지수도 6%의 상승했다.

연휴 이후 낙폭이 컸던 코스닥시장의 상승폭이 컸지만 연초 이후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주의 반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도 업종을 찾지 못하고 주 후반 삼성전자의 OLED설비투자 기대감으로 관련장비 업종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다.

거래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하며 환율수혜와 유가안정기대감으로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업종이 시장참여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강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과 일본의 환율 변동에 따라 증권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지난주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34.4원을 기록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증시는 환율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환율수혜업종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외형적 배경은 ▲중국경제 불안 및 국제유가하락 등 글로벌 여건악화에 따른 위험자산 성격 부각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형성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축소 ▲북한 핵실험 이후 악화한 지정학적 불안감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최근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급등한 내면적 배경으로 역외투기세력의 원·달러 환율 상승 배팅을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가치 하락을 용인 가능성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기대이상의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넘어서면서 기관의 매수세는 약화되고 일부 단기차익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지수 기준으로 1850선에서 1950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수상승에 따라 특정업종이나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업종별로 순환매를 보이며 지루한 장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산유국의 감산합의 기대감이 약화되거나 지난해 연말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주요국의 환율문제가 재부각될 경우 주식시장은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현지수대 이상에서는 일정 수준 현금확보를 통해 시장 급변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지리산, 온천지구 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피스텔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20층, 76평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사무실 전용
▮매매-2억2천만원
▮투자가치좋음

주인직거래
H. 010-3605-5000